

성경적 상담의 사례개념화에 대한 고찰: Sperry의 모형을 중심으로

박 안 나*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성경적 상담의 사례개념화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개념화는 상담에서 내담자의 정보를 분석하여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그 구성이 크게 구조와 가설로 되어있다. 구조 측면에서는 그동안 제안되었던 모형 중 Sperry와 Sperry 모형이 사례개념화의 정의가 그대로 구현된 것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가설 측면에서는 다양한 상담 이론 접근에서 사례개념화를 위한 주요 요소들을 제안해 왔다. 기독교 상담 영역에서는 성경적인 세계관과 인간관, 변화모델이 반영되는 것이 강조되어왔는데 Len Sperry는 목회상담과 영적지도를 통합한 상담 모형을 제안하여 인간의 영적 차원을 반영하고 영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사례 공식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성경적 상담 사례개념화는 Sperry와 Sperry 모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유발요인과 유지요인의 분석에 성경적 인간관이나 변화모델은 물론 성경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하여 현존하는 사례개념화 요소들을 검토하는 것이 제안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적 인지를 가진 상담자의 관점이다. 본 연구는 Sperry 모형을 중심으로 성경적 상담의 사례개념화의 적용 가능성을 고찰하여 성경적 상담과 교육에 통찰과 연구의 기초를 제공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사례개념화, 성경적 상담, Sperry와 Sperry의 모형, 가설, 영적 인지

• 논문 투고일: 2021년 9월 30일

• 논문 수정일: 2021년 11월 1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11월 6일

*헤세드상담센터 실장

I. 여는 글

사례개념화(case conceptualization)는 사례에 대한 최적화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으로(주혜선, 2016), 상담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최대한 정확하게 이해해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량이라는 점에서 실제 상담 현장과 상담자 교육 두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이윤주, 2016). 사례개념화가 상담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사례개념화를 잘 하는 상담자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상담자 교육에서 필수로 인식되면서(이윤주, 2016) 사례개념화가 하나의 독립된 연구 영역으로 자리 잡았으나 기독교 상담 영역에서는 그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였다. 기독교 신앙의 특성이 반영된 사례개념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전요섭, 2017), 성경적 상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 중 하나로 성경적 상담의 사례개념화에 대한 교육과 개발이 손꼽혔으나(김규보, 2019) 논의가 본격화 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국내 상담 영역에서 기독교적 접근 연구와 상담 활동이 꾸준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북미에서 지역교회와 전문기관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경적 상담 운동이 국내에도 적잖이 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을 생각한다면(김규보, 2019), 성경적 상담의 사례개념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 상담 영역에서 사례개념화에 대한 논의 중 하나로 성경적 상담의 사례개념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사례개념화의 개념과 모형, 제안 등을 살펴 성경적 상담의 사례개념화의 적용 가능성을 실제적인 면에서 고찰함으로써 성경적 상담과 상담자 교육에 통찰을 제공하고 이후 성경적 상담의 사례개념화에 대한 연구를 위한 기초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례개념화가 구조와 가설로 구성됨을 살펴보고 구조와 가설의 측면에서 성경적 상담을 위한 사례개념화

에 대한 적용을 논의한다. 특히 사례개념화 모형 중 Len Sperry(2012, 2014)가 제안한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해 성경적 상담 사례개념화 적용에 대하여 논하는 한편 성경적 상담 사례개념화만의 특징이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사례개념화의 구성

사례개념화 연구에서 자주 인용되는 일반적인 정의는 Tracy D. Eells(1997)가 정의한 '내담자가 가진 심리적, 관계적, 행동적 문제가 발생한 이유와 촉발요인 및 유지요인에 대한 가설'이다(손은정, 2001; 이윤주, 2001; 이명우 외 2005; 이윤주, 2016; 주혜선, 2016).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정의는 사례개념화가 아닌 사례공식화(case formulation)의 정의로, 정신역동적 접근에서 처음 사용한 사례공식화라는 용어가 점차 종합적이고 범이론적인 의미를 갖게 되면서 근래에는 '사례개념화'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이윤주, 2001; 전요섭, 2017; 금명자,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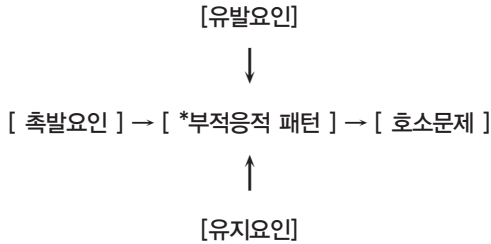
공식이라는 용어에서 출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례개념화는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구조적으로 조직화' 하는 것이 주요 특징인데,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구조'에 담는 내용물의 구체는 '가설'이다. 가설 또는 '가설설정' (hypothesis formation)이라는 용어는 인지적 접근으로부터 나왔는데(전요섭, 2017), 사례개념화가 구조라는 그릇과 가설이라는 내용물로 이루어졌다고 할 때 구조는 정신역동적 접근에서, 가설은 인지적 접근을 통해 강조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Eells(1997) 역시 사례개

념화는 크게 process와 content를 포함한다고 설명하였고 사례개념화 평가에서도 크게 ‘구조’와 ‘가설’로 나누어 평가하는 점에서 사례개념화는 구조와 가설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서경희, 2008). 다시 말하면 사례개념화는 내담자를 이해하고 치료 계획을 설명하는 일련의 가설을 도출하는 틀, 모델, 양식 등의 모형이다. 구조 자체가 가설을 도출하는 개념이므로 구조와 가설을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으나 성경적 상담의 사례개념화를 고찰해보기 위해 ‘구조’와 ‘가설’을 각각 면밀히 살펴보는 작업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조와 가설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구조

사례개념화의 구조는 그동안 국내외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사례개념화 ‘모형’으로 제안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윤주(2001, 2016)와 이명우(2004, 2018)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각각 Pearl S. Berman과 Len Sperry 및 Jonathan Sperry의 저서를 번역하여 국내 연구자와 상담자들에게 소개하는 한편 국내에서 상담 교육과 슈퍼비저가 활성화되는 시기에 사례개념화 연구를 주도하여 국내 사례개념화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이윤주(2016)는 상담사례개념도를, 이명우(2018)는 통합적 모델(ICCM-X)을 제시하였는데 이윤주의 강조점은 가설과 이론에 있다고 보아 여기서는 ‘구조’에 보다 초점을 둔 이명우의 모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모델은 크게 7개 영역 -① 호소문제 ② 촉발요인 ③ 부적응적 패턴 ④ 상담자 관점 ⑤ 상담 목표 ⑥ 상담전략 ⑦ 예상되는 장애-으로 구성된 구조로 ④ 상담자 관점에는 ‘유발요인’, ‘유지요인’ 및 ‘문화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Sperry와 Sperry(2014)의 틀과 일맥상통하고 연구자 자신도 그 점을 밝히고 있다(이명우, 2018). Sperry와 Sperry의 틀과 이명우의 사례개념화 구성 틀이 유사한 것은 이들이 내담

자의 ‘패턴’을 중요시 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Sperry와 Sperry (2014)는 패턴을 ‘개인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대처하고 방어하는 일관적이고 자기영속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패턴이 부적응적일 때 호소문제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패턴을 사례개념화 모형의 중심에 놓았다. 따라서 이들에게 상담이란 부적응적 패턴을 알아내어 보다 적응적 패턴으로 대체하는 변화과정이었으며, 이를 공식화하여 부적응적 패턴을 알아내는 것을 진단적 공식화(Diagnostic Formulation)로, 이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지되었는가를 임상적 공식화(Clinical Formulation)와 문화적 공식화(Cultural Formulation)로, 적응적인 패턴으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상담개입 공식화(Treatment Formulations)로 조직화하여 사례개념화 구성 틀을 제안하였다(그림 1 참고).



(그림 1) Sperry & Sperry(2014) 사례개념화 모형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 <표 1>에서 보듯이 진단적 공식화는 부적응적 패턴을 자극하는 사건 개념인 촉발요인으로 시작되며, 내담자 문제에 대한 추론의 핵심인 임상적 공식화는 부적응적 패턴을 촉진하거나 활성화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표 1〉 Sperr & Sperry(2014) 사례개념화 요소)

공식화분류	공식화 내 요소	설명
진단적 공식화	[호소문제]	촉발요인에 대한 패턴화된 반응
	[촉발요인]	패턴을 촉발한 자극요인
	[*부적응적 패턴]	효과가 없는 사고나 행동 방식
임상적 공식화	[유발요인]	부적응적 패턴을 촉진한 요인
	[유지요인]	패턴을 활성화
문화적 공식화	문화적 정체성, 문화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 설명, 문화 대 성격	
상담개입 공식화	상담 목표	상담의 결과
	상담의 초점	적응적 패턴의 방향성, 핵심
	상담전략	적응적 패턴 달성위한 실행 계획과 방법
	상담개입	패턴변화 달성위한 기법과 기술
	장애물과 도전과제	부적응적 패턴으로 예상되는 도전과제
	상담의 예후	경과, 지속기간, 결과 예측

구성 틀에 어떠한 내용으로 가설을 도출하느냐는 상담이론 접근마다 달라 사례개념화 양식이나 모형이 통일되거나 절대적인 것은 없지만(전 요섭, 2017) 어떤 이론적 접근을 하더라도 사례를 개념화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포함된다(이윤주, 2020). Sperry와 Sperry의 사례개념화 모형은 앞에서 소개한 Elles의 정의에 포함된 ‘문제의 발생 이유’, ‘촉발요인’, ‘유지요인’ 라는, 정의에 포함된 필수 요소를 조직적으로 구현하여 정의에 충실한 구성 틀이며, 이명우 뿐 아니라 최근 사례개념화를 제안한 금명자(2021)도 Sperry와 Sperry(2014)의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등 국내 연구자들이 내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잘 ‘배열’

- 1) 임상적 공식화의 요소인 DSM 진단과 상담개입 공식화의 요소인 문화적 상담은 필수가 아니어서 이 표에서는 생략되었으며, 문화적 공식화는 다문화사회인 미국의 상황을 반영하는 점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요소 이름만 나열하였다(Sperry & Sperry, 2014).

해서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틀(손은정, 2001), 상담자가 내담자를 잘 이해하는 기능적인 틀(Eells, 1997)로 이 모델을 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모형은 상담사가 어느 정도의 훈련을 받으면 내담자 문제에서 보이는 현상의 골격을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는 틀이기 때문에(이명우, 2020) 상담 현장과 상담 교육에도 유용하다. 사례개념화의 공통 구조를 사용하는 것은 치료자들 간 사례 이해나 치료 지침 등 개입 전략에서 전문가들 간의 일치성을 높여 치료 성과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주혜선, 2016). 그러나 이명우(2020)도 지적했듯이 상담의 전문성은 이 구조 자체가 아니라 이 틀을 통해 도출되는 가설에서 판가를 난다. 따라서 사례개념화의 또 다른 한 축인 가설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2) 가설

사례개념화는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조직화하여 문제를 이해하고 원인과 치료를 위한 일련의 가설을 세우는 것이므로(이윤주, 2001) 가설을 도출하는 것은 사례개념화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개념화의 본질이 ‘가설’이라는 것에서 사례개념화의 특징을 몇 가지 찾을 수 있다. 첫째, 사례개념화는 ‘가설’이므로 단정적이지 않고 상담이 진행에 따라 수정하고 보완해 가는 과정적이라는 것으로, 그 과정을 상담자와 내담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검증하게 된다. 둘째, 사례개념화에서 도출한 가설은 상담자가 취한 이론적 배경이나 접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내담자의 보고에 의존하기 보다는 상담자가 지닌 지식과 경험에 의한 판단에 기초한다는 것이다(주혜선, 2016).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셋째는 가설을 세우는 목적이 내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다는 것이다(손은정, 2001; 이윤주, 2016; 주혜선, 2016; 최윤미, 2019).

이윤주(2001, 2016)는 사례개념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여러 이론에 숙달되어 사례에 적합한 이론적 접근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론은 가설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며 가설은 상담 목표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례개념화에서 내담자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강조한 Berman(2020)의 의견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상담이론에 대한 숙지와 이해는 사례개념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탐색하는 질문으로 이어져 해당 문제와 그 근원을 파악하는 가설을 세우게 하고 여기에서 사례에 대한 최적의 목표가 나오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논리는 상담경력이 높은 상담자일수록 내담자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이해와 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한다는 연구 결과와 연결되는데, 결국 내담자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은 사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각 요소들이 일맥상통하도록 ‘통합적으로 조직된’ 이론적 가설을 세우는 상담자의 능력이기 때문이다(이윤주, 2001). 실제로 경력이 많은 상담자나 슈퍼바이저들은 다양한 구성요소 중에서 핵심문제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 상담 목표와 전략을 이끌어 낸다(이윤주, 2016). 따라서 연구자들은 가설을 위한 ‘사례개념화 요소’를 다양하게 제안해왔는데 국내 슈퍼비저 관련 연구에서 많이 언급되는 Loganlib과 Stoltenberg(손은정, 2001에서 재인용)는 호소문제, 관련역사, 대인관계 스타일, 환경적요인, 성격 역동이라는 총 5개의 요소를 제안하고 각각을 세분화하였으며, 사례개념화의 정의를 제공한 Eells(1997) 또한 사례개념화에서 다루어져야 할 요소 21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이윤주(2001)가 사례개념화의 요소 목록을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였는데, <표 2>과 같이 27개의 요소를 크게 8개의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표 2〉 이윤주의 사례개념화 요소

	영역	사례개념화 요소
①	내담자의 현재문제, 상태 및 관련 증상	지금 상담에 오게 된 계기, 구체적 호소들, 증상, 핵심문제 · 정서, 객관적 정보
②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	발달적 역사, 문제의 기원, 과거 문제력 및 당시 환경 상황
③	문제와 관련된 내담자의 내적 요인	자아개념, 통찰 내용과 수준, 인지적 스타일 및 특징, 정서적 스타일 및 특징, 신체 · 생리 · 행동적 특징, 원함(wants)
④	문제와 관련된 내담자의 상황적 요인	문제와 관련된 현재 생활 여건, 문제를 지속시키는 상황적 요인
⑤	내담자의 대인관계 특성	대인관계 양상, 대인관계 문제
⑥	내담자의 자원 및 약점	긍정적 상황과 경험 및 강점, 대처 전략, 부정적 상황과 약점
⑦	문제에 대한 상담자의 종합적 이해	핵심문제에 대한 이론적 설명, 내담자와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평가
⑧	상담 목표 및 계획	최종목표, 과정목표, 상담전략, 상담 목표달성의 장애로 예상되는 요소

이 후에 이윤주(2016)는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내담자의 강점, 약점, 취약 요인을 도출해 호소문제와 관련된 상담 목표를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상담사례개념도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이명우 외(2005)는 국내 상담전문가들의 사례개념 경험을 연구하여 사례개념화 요소를 기초적 요소와 심층적 요소로 분류해 〈표 3〉과 같이 제공하였다.

(표 3) 이명우 외(2005)의 사례개념화 요소

기초적 요소	'현재 나타나고 있는 행동적 문제점, 특성, 상태', '내담자의 현재 문제', '호소문제', '첫 기억', '상담실에 오게 된 문제', '내담자의 말투나 외모'	
심층적 요소	개인내적요소	개인의 장점, 어린 시절 상징적 내용, 내담자의 문제 표현 방식, 문제가 생긴 욕구 탐색
	대인관계적 요소	갈등 탐색,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또는 기억, 사람을 대하는 패턴, 상담자가 갖게 되는 감정 탐색

이처럼 국내에서도 국내 상담 상황에 적합한 사례개념화 요소가 다양한 연구 방법에 의해 제안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개입 방향을 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은 대동소이하며 요소들의 명칭과 카테고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사례개념화를 구성하는 '구조'와 '가설'을 각각 살펴봄으로써 '가설을 도출하는 모형'으로써 사례개념화를 이해해 보았으며, 국내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구조와 가설 영역에서 비교적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소들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제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성경적 상담의 사례개념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보자.

2. 성경적 상담의 사례개념화에 대한 고찰²⁾

사례개념화를 다룬 저서들을 살펴보면 사례개념화의 뼈대인 '구조'를 설명한 후 다양한 심리 이론들을 각각 그 틀에 적용하여 가설을 도출하

2) 성경적 상담과 기독교 상담과의 관계는 본 고에서 깊이 다룰 주제는 아니나 보다 큰 범주인 기독교 상담 영역에서도 사례개념화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에서 성경적 상담과 기독교 상담이 명백히 공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독교 상담의 사례개념화에 대한 견해를 참고하며 논의에 활용하였다.

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이명우, 2018; 최윤미, 2019; Berman, 2020) 그릇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각 이론의 강조점과 차별점은 내용물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례개념화의 본질이 구조보다는 가설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위에 이번 장에서는 성경적 상담의 사례개념화를 그 구조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1) 구조 : 영적 요소를 고려한 Len Sperry의 사례 공식화

앞에서 소개한 Sperry와 Sperry의 모형에서, 이 모형을 제안한 사람 중 Len Sperry가 영적 요소를 고려한 사례공식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점은 성경적 상담의 사례개념화의 구조를 생각해보는 우리의 관심을 끈다. 따라서 Sperry의 관련 연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Sperry는 신앙이 있는 내담자들의 치료에 영적인 변화 원리가 유용하다는 것에 주목하여 영적인 기능을 임상에 적용하는 연구를 꾸준히 실행해 왔다(Sperry, 2000, 2002, 2003). 특히 목회 상담과 영성 지도(spiritual direction)를 통합하는 모델을 제안해 영적 요소를 포함한 사례공식화의 가능성을 보였는데, 영성 지도란 영적 여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성장을 돕고 안내하는 사역으로 기독교 전통에서 그 역사가 매우 깊다(김경은, 2018). 영성 지도는 하나님과 개인의 만남에 초점을 두는데 비해 목회 상담은 개인의 주변 관계나 개인의 내적 및 외적 삶의 통합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 다르지만 Sperry(2012)는 영성 지도와 목회 상담 모두 개인의 인생 경험을 다루며 관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목회 상담이 영성 지도의 관심사들을 포함한다는 점을 들어 ‘통합 모델’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무엇보다 목회 상담이나 영성 지도 모두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심리학의 환원주의적 이론이 아닌 영적 요

소를 포함한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변화’란 ‘회심’의 핵심이기에 본질적으로 영적이며, 회심이 인간 경험의 모든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본 그는 그동안 제안된 하나님 이미지 이론이나 발달 단계 이론, 성격 유형 이론, 자기 초월이론 등은 모두 협의의 이론으로 한두 가지 차원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인간 경험의 다양한 차원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고 ‘영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변화 차원을 제안했다. 즉 지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정치적, 신체적, 종교적 차원의 6가지를 변화 차원으로 보았으며, 또 다른 한 축인 인간의 차원을 인격, 영성, 자기의 개념들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세 가지 지표인 미덕, 자기 능력, 영적 실천의 3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표 4>과 같이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통합 체계를 제공했다(Sperry, 2012).

<표 4> Sperry의 변화 차원 통합 요소

인간의 차원 변화의 차원	미덕 (도덕적 영역/인격)	영적 실천 (영적 영역/ 영성)	자기 능력 (심리적 영역/ 자기)
종교적	사랑, 거룩	영적 비전의 자각	자율성, 자기-포기
지적	신중	지혜와 이해력의 개발	비판적 반성
정서적	자기-돌봄, 동정	마음치유, 사랑하는 법 배우기	친밀감, 자발성, 자기-위로
도덕적	충실, 신뢰감	윤리적으로 살기	헌신
사회정치적	정의	봉사하기	비판적 사회의식
신체적	절제, 체력	열망의 변화	자기활성화, 자기유지

주목할 만한 것은 Sperry가 이 체계를 실제 상담 과정에 적용해 임상적인 관점에서 상담 절차에 맞추어 ‘공식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는 것

이다. 그는 이 모델이 변화의 차원과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 모형에 따른 상담 목표 설정과 개입 그리고 계획과 변화의 모니터링까지도 용이하다고 주장했다(Sperry, 2012). 그가 적용한 방법은 ① 위 표에서 제시한 요소들을 ‘평가’하여 결핍을 찾고, ② 상담 관계를 통해 결핍 간 우선순위를 정해, ③ 상담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특정 변화 차원의 기능수준이 낮으면 그 차원의 미덕과 영적 실천 또한 낮기 때문에 상담 목표에는 영적, 도덕적 요소가 포함된다.

또한 그는 이 과정에서 내담자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지도자와 피지도자를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로 보는 영성 지도의 정서가 기반이 된 이 통합 모델은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공식화와 상담자의 공식화가 불일치가 하더라도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호 합의해 가며 함께 수립하는 것이 상담 목표를 설정하고 상담 효과를 높이는데 강점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Sperry(2012)가 다량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 즉 신앙이 있는 내담자가 상담자와 상담 과정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면 사례개념화를 공유하며 함께 치료목표를 성취하는데 깊게 헌신한다는 것이 반영되어 있다. 사례 연구를 통해 이 통합 모델의 임상적 가치와 유용성을 예증한 Sperry는 이 모델이 개인의 독특한 영적 여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변화를 이끈다고 확신하며 상담 초기 문제의 초점과 상담 목표의 설정, 더 나아가 개입과 변화의 모니터링에도 매우 유용하다고 주장했다(Sperry, 2012).

Sperry의 통합 모델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성경적 상담의 사례개념화와 관련하여 두 가지 면에서 의의가 있다. 하나는 인간을 ‘영적 존재’로 보고 영적 차원을 다른 차원들과 연결하여 통합했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사례 공식에 ‘변화’와 ‘변화 과정’이라는 개념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영적 차원을 모델에 반영할 뿐 아니라 상담 목표 설정에서 반드시 이 부분이 포함되도록 근거를 제공했

으며, 상담 목표 설정 과정에서도 영적 존재로서 상담사와 내담자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Sperry(2012)는 변화의 핵심을 회심으로 봄과 동시에 영적 변화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변화의 촉진을 지향한다고 보아 이를 통합 모델에 반영하고 설명하였다. 비록 변화 과정 자체는 자세히 기술하지 않았고 영성과 도덕을 심리학에 단순히 통합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사례 공식에 영적 차원과 영적 영역의 변화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며 영성을 의미 있는 자리에 놓은 것은 성경적 상담에서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내용이다. 이 후 그는 임상 연구를 통해 ‘영성’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보여주고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고려’가 치료 과정의 한 부분으로 치부되거나 종교적인 상담자들만의 방법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는, 인간을 위한 ‘근본적인 치료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Sperry, 2006).

2) 가설: 세계관, 인간관 및 변화모델의 반영

국내 기독교 상담 영역에서 사례개념화에 논의가 양적으로 부족한 편이나 다행히 핵심을 지적하는 논의가 있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전 요섭(2017)은 기독교 상담 자체가 기독교적 정체성이 그대로 반영된 상담이기 때문에 사례개념화를 통한 목표 설정이 일반적인 사례개념화와 동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기독교상담의 특성을 반영하는 기독교 상담 사례개념화에 대해 논하였다. 그는 앞에서 언급한 Eells나 Sperry와 Sperry가 제시한 사례개념화가 신앙적, 영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고 DSM을 기준으로 한 진단으로 치중될 수 있어 기독교 상담의 사례개념화로는 적절치 않다고 보면서 사례개념화에 심리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정체성에 해당하는 영적, 신앙적 관점의 통합과 균형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영적 관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 내담자에게 문제와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사례개념화에서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내담자가 제공하는 정보에서 가족구성원의 신앙적, 영적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가계도를 활용하는 등 ‘신앙사’ 또는 ‘신앙배경’을 깊이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전요섭, 2017). 또한 사례개념화를 통한 치료 방향에 대해서도 기독교 치료방편의 핵심인 ‘소망’, 즉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나 천국에서 상급 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내담자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좋은 사례개념화의 특성으로(금명자, 2021), 소망은 기독교 상담과정이 독특하게 강조하고 있는 요소이며 상담에서 내담자에게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소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안경승, 2016).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기독교 상담의 특성이 반영된 사례개념화 요소로 죄와 소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전요섭, 2017).

또한 김준(2021)은 사례개념화에서 변화모델의 적용을 강조하여 진단과 해결 영역 모두에서 성경적 변화모델을 활용한 사례개념화를 제안하였다. 성경적 변화모델은 성경에서 인간의 내면을 상징하는 ‘마음’을 동기, 생각, 감정의 영역으로 보고 동기를 우선순위에 놓은 상태에서 이 세 영역의 역동적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 자체로 사례개념화의 진단 영역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때 내담자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정보와 함께 성경적 관련 요소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곧 현재 신앙생활의 모양이나 복음에 대한 이해,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자원 등이며 이 정보들은 내담자의 강점이 되기도 한다(김준, 2018). 김준(2021)이 제안한 하나님 이야기 관점의 성경적 변화모델은 결국 내담자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확립해가는 것이며 상담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강조된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논의는 기독교 상담의 사례개념화에서 가설은 결국 기

독교 세계관과 인간관이 반영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내담자 문제의 분석과 진단을 영적인 관점으로 한다는 것은 창조, 타락, 구속, 회복 관점의 세계관과 인간을 영육혼이 통합된 존재로 보는 관점 그리고 인간 변화에 대한 이론과 정보인 성경적인 변화모델이 모두 적용된다는 것이다. 인간관과 변화모델이 진단과 목표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데, 결국 사례개념화와 상담과정은 모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축을 따라가는 것이라 하겠다.

3) 성경적 상담의 사례개념화의 구조와 가설

지금까지 성경적 상담 관점에서 사례개념화를 구조와 가설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례개념화에는 범이론적으로 공유하는 핵심 요소들이 있으므로 성경적 상담 또한 하나의 상담 접근으로써 사례개념화의 공통적인 핵심 요소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공통적인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사례개념화의 구성 중 하나인 ‘구조’가 이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 앞에서 사례개념화의 본질은 구조보다는 가설에 있어 그릇에 해당하는 ‘구조’는 각 이론 접근에서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살펴본 Sperry와 Sperry의 모형은 국내에 여러 연구자들에게 의해 소개되어 현장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모형으로써 성경적 상담을 위해서도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근거는 이 모형이 사례개념화의 정의에 충실한 모형이라는 점, 즉 사례개념화의 정의를 그대로 구조적으로 표현한 모형이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의는 Elles(1997)의 정의를 말하고, 이 정의는 원래 ‘사례공식화’에 해당되며 이는 정신 역동적 접근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앞에서 밝혔다. 그런데 정신 역동적 측면에서 나왔다는 것은 사례를 ‘공식화’한다는 개념, 사례를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개념, 즉 그릇이 필요하다는 개념이지 그 본질은 아니다. 또한 성

경적 상담은 정신 역동적 접근이라도 필요한 부분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형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성경적 상담을 위한 사례개념화의 정의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한 Sperry와 Sperry의 모형을 성경적 상담을 위한 사례개념화에 사용할 수 있다. 성경적 상담도 상담이기 때문에 상담을 위한 범론적이고 공통적인 이 그릇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성경적 상담을 위한 사례개념화의 정의가 필요하다면 그릇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가설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모형이 DSM을 기준으로 한 진단으로 치증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전요섭, 2017). 그러나 성경적 상담은 필요시 DSM 기준의 병리적 진단을 할 수 있다. 성경적 상담의 핵심은 병리적 진단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리지 않았다. 전요섭(2017)이 이 모형에 대해 비판한 것은 사례개념화에 기독교적 정체성에 당하는 영적, 신앙적 관점의 통합과 균형을 강조한 것, 즉 내용물에 관한 것인지 그릇에 해당하는 구조나 DSM 기준의 진단 그 자체가 아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구조 자체는 가치 판단에 대한 부분이 핵심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아닌 것이다.

이 모형을 성경적 상담을 위한 사례개념화 모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이 모형을 제안한 Sperry의 관점에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Sperry는 임상 치료에서 영적 요소를 고려하여 연구해왔다. 그가 제안한 목회 상담 및 영적 지도 통합 모델에서 고려한 영성, 영적 실천, 관계 그리고 변화와 회심 등이 곧 그것이며, 그는 여러 연구를 통해 ‘영성으로 조율된 심리치료와 상담’이라는 용어로 영적 요소를 아우르는 임상 접근을 설명해왔다(안경승, 2016에서 재인용). 물론 Sperry와 Sperry의 모형 자체에는 직접적으로 영적 요소들에 강조점을 두지 않고 포괄적인 상담에서의 구조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연구자이며 치료자로서 그의 관점과 관심은 그가 제안한 모형에 영향을 미쳐 영적 관점의 가설을 담을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인정하게 된다. 인식하건 그렇지 않건

모든 사람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자 또한 자신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자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연구 문제의 개념화부터 자료의 수집, 분석, 해석은 물론 결국 결과물에 기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Creswell, 2015). 세계관은 세상과 실재에 대한 ‘믿음’으로 본질적으로 종교적이고 신학적이므로(신국원, 2005), 연구자의 가치관이 반영된 Sperry와 Sperry의 모형은 성경적 상담의 가설을 담지 못할 그릇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모형을 성경적 상담을 위한 사례개념화 모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근거는 Sperry의 통합 모델에서 변화의 차원, 인간의 차원을 통한 ‘평가’가 Sperry와 Sperry(2014)모형의 ‘유발요인’과 ‘유지요인’을 찾는 것과 접점이 있다는 데 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Sperry의 통합 모델은 상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두 축으로 이루어진 차원의 내용을 내담자와 함께 ‘평가’하여 결핍을 찾고 그것을 상담 목표로 정하는 공식이라고 하였다. 상담 목표를 위한 ‘평가’ 그리고 결핍을 찾는 과정이 핵심인데, 이는 Sperry와 Sperry(2014) 모형의 임상적 공식화의 본질과 같은 것이다. 사례개념화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는 임상적 공식화이고 임상적 공식화는 본질적으로 내담자의 패턴과 호소문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내담자의 유발요인과 유지요인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Sperry & Sperry, 2014). Sperry의 통합 모델의 평가와 결핍의 내용물은 영적인 차원과 영적인 실천이나 지표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Sperry와 Sperry(2014) 모형이 성경적 상담의 가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주요 사례개념화 요소까지도 제공하며 ‘그릇’과 ‘내용물’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제 사례개념화의 본질인 ‘가설’에 대한 논의를 Sperry와 Sperry 모형의 유발요인(Predisposition)과 유지요인(Perpetuants)에 초점을 맞추어 이어가는 것이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되리라 사료된다. 유

발요인과 유지요인은 각 상담이론의 강조점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다. 앞에서 소개한 여러 연구자들이 제안한 사례개념화 요소 또한 유발요인과 유지요인 분석에 사용되는 것이었다. 특히 임상적 공식의 핵심은 유발요인으로(Sperry & Sperry, 2014) 사례개념화의 정의를 제공한 Eells는 유발요인을 사례공식화의 ‘기원’이라고 하였다(이명우, 2018에서 재인용). 유발요인은 내담자의 부적응적 패턴을 설명하고 호소문제와 촉발요인을 연결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례개념화의 가설은 내담자 문제에 대한 ‘원인’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주요한 축인데, 중요한 것은 이 원인을 찾는 심리 이론들이 인간에 대한 가정, 즉 인간관을 비롯해 인간의 특성, 발달, 문제 발생 및 치료에 대한 전제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금명자, 2021).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 상담 영역에서는 유발요인과 유지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어 성경적 인간관과 변화 모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은 매우 타당하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부패하여 마음과 관계의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메시아를 통한 구속과 성령의 도움으로 변화 받아야 하는 존재로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해결책으로 밝히고 있다. 성경적 상담 사례개념화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관점으로 내담자가 해왔던 반응과 그 이면의 감정, 생각, 동기를 평가하여 유발요인과 유지요인을 찾는다. 물론 이외의 요인들, 예를 들어 환경적인 요인이나 주요사건들, 성장 배경 등도 통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성경적 상담의 사례개념화에서는 인간 존재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변화에 대한 개념이 유발요인과 유지요인에 반드시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성경은 인간을 여러 부분들이 단순히 합쳐진 존재가 아니라 영육혼의 전인적인 존재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개념화의 목적은 상담자의 가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

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문제 해결을 돕는 것에 있다(손은정, 2001; 전요섭, 2017; 최윤미, 2019). 문제 해결을 돕는다는 것은 진단을 올바르게 한다는 것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전제로부터 분석되어 도출된 가설이 상담 목표와 상담 개입으로 연결되어 내담자를 돕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인간관과 변화 모델을 전제로 하느냐는 상담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며 성경이 인간에 대한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 관점의 인간관과 변화 모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4) 유발요인과 유지요인의 분석에서 성경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례 개념화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기독교 상담 사례개념화에서 Sperry와 Sperry 모형을 사용이 유용할 수 있고, 특히 유발요인과 유지요인을 성경적 인간관과 변화모델을 반영한 관점과 요소로 평가하여 가설을 설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제 성경적 상담의 사례개념화에서 유발요인과 유지요인을 평가할 때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점을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첫째,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성경적 상담은 성경의 충분성에 기초하여 상담에서 성경의 권위를 최대한 인정한다(김준, 2013). 성경의 충분성은 성경이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삶의 원리들을 충분히 제공한다는 것으로 상담에서 모든 가치의 판단에 성경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가장 높은 권위에 두어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성경적 상담의 전제는 이미 성경적 상담 사례개념화에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다(김준, 2013; 박안나, 2021에서 재인용). 즉, 성경적 상담 사례개념화는 성경의 세계관과 인간관에 따라 인간의 영적 속성의 우선으로 놓고 문제의 유발요인과 유지요인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그 대상은 앞에서 살펴본 여러 연구자들에 제안되었던 모든 요소-

Loganlib과 Stoltenberg(손은정, 2001에서 재인용)이 제안한 5개의 요소, Eells(1997)이 제안한 21개의 요소, 이윤주(2001)가 제안한 21개 요소, 이명우 외가 제안한 요소, Sperry의 변화 차원 통합 요소, 김준(2018)이 제안한 요소 등 -가 모두 해당된다. 상담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사례개념화 요소들이 정형화되고 있어 실제 상담에서 도움이 되고 있지만 다양한 내담자들의 문제를 유발하는 이유는 문제 수만큼이나 다양해 공통성과 개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때 성경적 상담은 그 이유를 '평가' 하는 '기준' 으로서 성경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놓는다. 성경은 인간을 익숙히 알고 판단하며, 영혼의 깊은 필요에 응수해 모든 문제에서 사람을 지도하기에 완전하며 충분하기 때문이다(박형룡, 2002).

다시 강조하지만 성경을 가장 높은 권위에 놓는다는 것은 사례개념화 요소로 반드시 종교적, 신앙적 요소들만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성경적 사례개념화를 위한 특정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 역시 아니다. 앞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제안한 사례개념화 요소들은 모두 성경적 상담 사례개념화에 사용될 수 있다고 밝힌 것처럼, 예를 들어 내담자의 발달적 역사나 자아개념, 대인관계 양상 등은 모두 성경적 상담 사례개념화에서 성경적 관점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어떤 요소든 성경적 관점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성경적 사례개념화를 위한 특정 요소의 개발도 그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상담사의 영적 인지이다. 성경적 상담 사례개념화의 첫 번째 특징인 우선순위는 결국 상담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상담사의 영적 인지는 특징으로 연결된다. Sperry(2012)가 강조했듯이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 협력은 더 설명할 필요 없이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판단은 상담사의 몫이다. 사례개념화는 상담사의 인지 구조를 반영하는 인지적 과정으로, 내담자로부터 얻은 다양한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잘 배열해서 내담자 문제에 대한 윤곽을 잡

고 그러가는 것은 결국 상담자다(손은정, 2001). 사례개념화는 내담자의 보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의 지식이나 판단에 기초하는 작업 이므로(주혜선, 2016) 상담자는 이를 위해 특정 지식의 이론과 연결하려 할 뿐 아니라(이윤주, 2016), 좋은 상담자는 자신의 입장과 관점을 분명하게 해 상담에 적용한다(안경승, 2016). 즉, 사례개념화에 작업의 주도성과 그 책임은 상담자에게 있다.

안경승(2016)은 기독교 상담의 가장 본질적인 구별점이 ‘상담자 자신’이라고 하며 이것의 핵심 중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보았다. 즉 상담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 병리관, 상담의 목표와 개입에 대한 성경적 전제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 포함된다(안경승, 2016). 최적의 사례개념화는 가장 효과적인 상담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상담의 성과를 촉진하게 되는데(이윤주, 2016), 성경적 상담의 사례개념화에서는 상담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내담자 문제에 대한 올바른 상담 목표와 개입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핵심이며 그것은 곧 상담자가 성경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놓는 것을 의지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붙잡는 ‘영적 인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

결국 사례개념화에서도 성경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놓는 것이 상담사의 영적 인지이며 영적 인지가 높은 상담자는 상담자와 내담자에 대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담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묻고 성찰하며 사례개념화에 임하는 상담자이다. Edward T. Welch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일한 방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상담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 또한 하나님과 상담자의 관계 안에서 상담자의 영적 인지를 활용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김준, 2013에서 재인용).

성능이 뛰어난 사례개념화 프로그램이 있어 촉발요인과 부적응적 패턴, 주호소문제를 문장이나 키워드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상담 목표라는 결과를 내 준다면 그것이 이 내담자를 진정으로 돕는 상담 목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 문제에 대한 최적의 사례개념화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할 수 있으며, 그 역할을 하는 상담자가 취해야 하는 방법은 내담자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특히 유발요인과 유지 요인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성경의 권위를 가장 높이 두는 ‘영적 인지’를 사용해 겸손하게 성경의 관점을 취하며 분석하는 것이다.

III. 닫는 글

본 연구는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핵심 역량인 사례개념화의 구성이 구조와 가설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기독교 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를 구조와 가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성경적 상담의 사례개념화의 적용과 본질에 대하여 논하였다. 구조 측면에서는 사례개념화의 정의에 충실한 Sperry와 Sperry(2014)의 모델이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여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독교 상담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고, 보다 본질적인 가설 측면에서는 성경의 세계관과 인간관, 변화모델이 포함되는 것이 강조되었다. 특히 성경적 상담의 사례개념화에서는 유발요인과 유지요인의 분석에 인간 존재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변화에 대한 개념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즉, 성경적 상담의 사례개념화는 모형이나 기독교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담자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성경의 관점에 대한 우선순위와 그것을 적용하는 상담자의 영적 인지가 핵심이었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례개념화의 정의는 ‘내담자

가 가진 심리적, 관계적, 행동적 문제가 발생한 이유와 촉발요인 및 유지요인에 대한 가설'로서 성경적 상담 사례개념화는 이 정의를 따른 Sperry와 Sperry(2014) 모형을 사용할 수 있고, 촉발요인과 유지요인에 대하여는 성경적 인간관을 우선으로, 그 정답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우심을 구하며 작업해야 한다.

본 연구는 상담 현장에서 성경적 상담을 하는 상담자들이 보다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성경적 상담의 사례개념화를 본격적으로 다룬 첫 연구이며, 성경적 상담 사례개념화를 따로 수립하기보다는 범이론적으로 통용되는 Sperry와 Sperry(2014)의 모형을 성경적 상담 사례개념화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한편 성경적 상담 사례개념화의 본질과 진정한 구별은 성경적 관점을 최우선에 놓는 상담자의 영적 인지임을 강조해 성경적 상담의 실제적인 효율과 성경적 상담자 교육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데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 실제 상담 사례로 성경적 상담 사례개념화를 한 사례 연구가 이어진다면 보다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성경적 상담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금명자 (2021). **상담 사례개념화 연습하기**. 서울: 학지사.
- 김경은 (2018). 영성지도의 역사. **선교와 신학**, **45**, 11-41.
- 김규보 (2019). 한국 성경적 상담 운동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과제. **복음과 상담**, **27**(2), 35-75.
- 김 준 (2013). 기독교 상담과 성경: 성경적 상담 관점에서. **개혁논총**, **27**, 161-188.
- 김 준 (2018). 기독교상담과 인지치료: '마음'의 성경적 의미 고찰을 통한 성경적 접근. **복음과 상담**, **26**(2), 59-85.
- 김 준 (2019). 성경적 변화모델, 1-16.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제32차 학술대회 세미나 발표 자료**.
- 김 준 (2021). **성경적 상담과 하나님 관점의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그리스심.
- 노원석 (2009). 성경적 상담의 인간관 -상담이론별 인간의 책임 영역 비교-. **성경과 상담**, **9**, 141-173.
- 문정화 (2011). 결혼초기 부부문제에 대한 통합적 가족치료 사례개념화 모형 개발 연구: Bowen의 가족체계이론과 MRI의 의사소통모델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안나 (2021). **조손가족 조모의 적응 과정 분석**. **총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형룡 (2002). **敎義神學 序論**. 서울: 改革主義信行協會.
- 서경희, 김지현 (2008). 사례개념화 상담자 자가평가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657-673.
- 손은정 (2001). 상담자 발달 수준별 사례개념화의 차이 - 개념도를 통한 인지 구조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국원 (2005). **니고데모의 안경: 쉽게 풀어 쓴 신국원의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 경기: IVP.
- 안경승 (2016). 기독교 상담과정의 독특성. **복음과 상담**, **24**(2), 221-253.
- 이명우, 연문희 (2004). 상담사례개념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청소년상담 연구**, **12**(1), 143-155.
- 이명우, 박정민, 이문희, 임영선 (2005). 사례개념화 교육을 위한 상담전문가의 경험적 지식 탐색 연구. **한국심리 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277-296.

- 이명우 (2011). 사례개념화 슈퍼비전 과정-성과 단일 사례연구: 수련기 초기 슈퍼바이지 대상. *재활과학연구*, 50(2), 19-42.
- 이명우 (2013). 사례개념화 집단교육의 효과 분석. *예술심리치료연구*, 9(3), 113-131.
- 이명우 (2018).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사례개념화의 실제*. 서울: 학지사.
- 이명우 (2020). *사례개념화 기반 개인상담의 실제*. 서울:학지사.
- 이윤주 (2001). 상담사례개념화 요소목록 개발 및 타당성 검증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주 (2016). 효율적인 상담사례개념화를 위한 상담사례개념도의 활용.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1(2), 53-72.
- 장유진 (2021). 숙련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 및 상담개입전략 수립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문화 연구*, 27(1), 459-482.
- 전요섭 (2017). 기독교상담 특성이 반영된 사례개념화. *신학과 실천*, 53, 255-280.
- 주혜선 (2016). 트라우마 사례개념화 양식(TCFF)의 개발: 사례개념화 기반의 트라우마 심리 치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1), 89-125.
- 최윤미 (2019). 상담 이론에 기반한 상담사례의 사례개념화- 대상관계이론, 인지치료이론, 실존역동적 접근 방식의 사례개념화.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4(2), 27-41.
- Berman, P. S. (2020). *상담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례개념화 원리와 실제*(이윤주 역, *Case conceptualization and treatment planning: Integrating theory with clinical practice*, 3rd ed.). 서울: 학지사.(원전 2015 출판).
- Creswell, J. W.(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서울: 학지사.(원전 2013 출판).
- Eells, T. D. (1997). *Handbook of psychotherapy case formula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Reetz, D. R. (2008). The search form mastery: An investigation into creativity as an antecedent to early counselor case conceptualization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IN.

- Sperry, L. (2000). Spirituality and psychiatry: Incorporating the spiritual dimension into clinical practice, *Psychiatric Annals*. 30(8), 518–523.
- Sperry, L. (2003). Integrating spiritual direction functions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1(1), 3–13.
- Sperry, L., & Mansager, E. (2004). Holism in psychotherapy and spiritual direction: A course correction. *Counseling and Values*. 48(2), 149–160.
- Sperry, L. (2006). Working with spiritual issues of the elderly and their caregivers. *Psychiatric Annals*. 36(3), 185–194.
- Sperry, L. (2012). 목회 상담의 영성 지도의 새로운 전망(문희경 역, *Transforming self and community*).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원전 2002 출판).
- Sperry, L. & Sperry, J. (2014). 상담실무자를 위한 사례개념화 이해와 실제(이명우 역, *Case conceptualization: Mastering this competency with ease and confidence*). 서울: 학지사.(원전 2012 출판).

【 Abstract 】

Case Conceptualization of Biblical Counseling:
Focusing on Sperry's model

Park, Ann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se conceptualization of biblical counseling. Case conceptualization i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goals and strategies by analyzing the client's information in counseling and is composed of structures and hypotheses. In terms of structure, the Sperry & Sperry model is widely used as the definition of case conceptualization as it is and in terms of hypotheses, major elements for case conceptualization have been proposed in various counseling theory approaches. In Christian counseling, it has been emphasized that the biblical worldview, perspective on human beings and 'change model' are reflected. Len Sperry proposed a counseling model that integrates pastoral counseling and spiritual direction and showed the possibility that reflects the spiritual dimension and evaluates spiritual elements in an integrated way. Therefore, the model can be used for biblical counseling case conceptualization. In particular, it was suggested to review the existing case conceptualization factors by prioritizing the authority of the Bible as well as the biblical perspective on human beings and change model in the analysis of Predisposition and Perpetuants. What is important is the perspective of the counselor with this spiritual awarenes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insight into biblical counseling and education by examining the applicability of case conceptualization of biblical counseling centering on the Sperry's model.

Key words: case conceptualization, Biblical counseling, Sperry & Sperry's model, hypothesis, spritual conginition

* Hessed Counseling Center / Senior Counselor